

## 죽어야 사는 비밀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렸을때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가서 예쁜빛깔로 만들어진 달걀을 받은기억이 있을것이다. 그 고운빛은 교회를 안다녀서 부활절의 의미를 몰랐던 내게조차도 뭔가 아름답고 고운 기대나 소망을 아련하게 품게했던 기억이 난다. 그랬듯이 지금도 부활절 하면 미국인 모두가 이날을 특별한 날로 (심지어는 공휴일이라도)지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이 부활절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가장 특별한날 이어야하는데 과연 이 날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예수님은 가장 심플하고 단호하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를 자신을 모본으로 가르쳐주신 사건이다. 성경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말이다.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다. 세상은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말이다. 심지어는 살기위해 남을 죽여도(마음을 죽이는것) 된다는 원칙을 정당화 시키는데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밀쳐내는데 별 수단 과 방법을 안가리는 세상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곤경에 빠지든지 상관없는 세상이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 나를 보호하기위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상관없다. 내이름 내얼굴을 들어내기 위해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으로 속으로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다.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소망과 꿈, 기대보다는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우리가 부인할수 없는것같다. 내가 만나는 많은 청소년들(예상외의 많은 아이들이 )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가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예전의 우리의 공통적이고 평범한 바램은 성실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들딸 잘낳고 행복한 단꿈을 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꿈과 바램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삶에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무조건인 물질적인 성공으로만 치달거나 아니면 비관적자세 즉,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뭐하냐?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지는데…. 글로벌 워밍, 재난, 전쟁, 폭력, 범죄등등을 두려워하며 평범한

꿈이 이젠 비범한 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가는것같다 .가정에서 부부의 갈등, 이혼, 부모자녀의 심각한 갈등, 이웃과의 넘지못할 높은 담벽...이러한것들은 바로 내가 살기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힘들어진 삶의 모습인것이다.내가 살기위해 다른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인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으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으면,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으면 되었을 문제들을 내가 살겠다고 그 원망과 불평의 손가락을 상대에게 겨누면서 서로 아파하고 있는것이다. 죽으면 산다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고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지이다. 왜냐하면, 이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고 이안에 사랑의 실체가 있고 이안에 완성과 온전함이 있다. 이 부활절에 교회는 위에서부터 죽는 연습과 모본을 보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모본을 가정에서 보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비밀을 통해 살아나는 가정들이 만들어질때 비로소 사회나 세상은 죽어야 사는 비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것이다. 그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비밀이 세상을 변화시킬수 있을것이다. 이번 부활절엔 나부터 남편에 대해, 사랑하는 세 딸들에 대해 그리고 내 이웃들에 대해 다시한번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부활의 기쁨을 다시 누려보고 싶다.